



동부사랑의교회
동양선교교회
디사이플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씨드교회
LA온누리교회
유니온교회
토렌스조은교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 20:5-7

- 1월 4일 (월)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 창 16:8-13
- 1월 5일 (화)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레” 창 22:1-14
- 1월 6일 (수) 김지훈 목사(동양선교교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체바오트” 삼상 21:5-9
- 1월 7일 (목) 이상훈 목사(미성대학교, MiCA Director)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삼마” 겔 48:35; 계 21:3-5
- 1월 8일 (금) 김우준 목사(토렌스조은교회)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살롬” 빌 4:4-7
- 1월 11일 (월) 윤대혁 목사(사랑의빛선교교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파” 출 15:22-27
- 1월 12일 (화)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시 113:5-9
- 1월 13일 (수) 이정엽 목사(LA온누리교회)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라야” 시 23:1-6
- 1월 14일 (목) 우영화 목사(동부사랑의교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메카디쉬켄” 출 31:12-13
- 1월 15일 (금) 고현종 목사(디사이플교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닛시” 출 17:8-16



지난 2주간 MiCA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드렸던 특별사백예배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을 두 분의 목사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좀 거창하긴 하지만 저는 교회론의 관점에서 이번 MiCA 연합 사백예배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네가지 표지(marks)로 설명되었는데, 곧 사도성, 보편성, 통일성, 거룩성입니다. MiCA를 모이게 한 선교적 교회라는 방향에 있어 사도적이고, 각각의 교회가 하나임을 인식하는 계기였기에 보편적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들이 연합했다는 사실이 통일성이며, 성도들이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함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MiCA의 교회들이 우리의 '교회됨'을 다시금 되새기고, 교회로서의 진정성을 위해 애써 마음과 기도와 힘을



모으는 시간이었음에 함께 기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과 함께 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권혁빈 목사 (씨드교회)

새해를 시작하는데, 교회도 목회자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는 목회자들의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드실 텐데도 오�히려 교회를 그리워하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걱정하는 그 모습에 작은 희망을 드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되고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 밖에 없고, 살아 계신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붙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함께하는 목회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여호와와 이름만 선포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상생과 연합속에 공동체를 이루고 손잡고 오로터 한 길가는 기도의 여정을 통해 바뀌지 않는 현실에서도 하늘소망으로 이겨 나가길 소망했습니다. 이 일제 기도의 손



함께 잡아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그 이름 앞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새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주 목사 (선한청지기교회)

MiCA의 디렉터로 있는 이상훈 교수님께도 이번 행사의 의의와 소감을 여쭙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주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교회의 벽을 넘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를 드리며 같은 방향으로 마음과 뜻을 모으는 시간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역이 이민 교회 흐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연합과 협업을 위한 가능성과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참여하는 하나님나라 운동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합사백예배를 마친 후 MiCA가 추진하고 있는 사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포스트 코로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19가 교회에 끼친 영향과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파악하려 합니다. 지난 1년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과 신앙관, 신앙 형태와 방법 등 모든 면이 바뀌었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다가온 위기가 어떻게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님들의 경험과 느낌, 전망을 이해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회는 미래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 이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나오는 조사 결과들도 있지 않나요?

사실, 미국 교회는 이런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요. 상황은 다르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한국 교회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전문기관들이 생겨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민교회는 전문한 실정입니다. 이민 사회, 혹은 이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MiCA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민 교회의 현실을 파악하고 선교적 사역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Think Tank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교회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전문가로서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미래는 교회 공동체에 시련과 도전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훨씬 더 강하게 몰아치면서 기존의 가치와 질서는 더욱 흔들리게 되겠지요. 이때 교회는 본질을 집중하되,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대에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 변화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신앙을 답습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MiCA가 그것을 도울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그 사명을 이뤄 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훈 교수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LA) 미성대학교 총장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겸임교수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대표 디렉터



Missional Church Alliance

현장스케치

MiCA 연합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루의 시작과 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비대면으로 드리지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번 MiCA새벽기도회를 통해 강사와 관경을 떠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호와야 라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 갈아서 각자 제 갈 길로 가지 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MiCA새벽기도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LA누리교회 이규진

MiCA연합예배를 통해 지역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으로 새해의 아침을 시작하고 코로나로 인해 쉽지 않았던 상황속에서 큰 힘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더 함께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써 다함께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LA누리교회 성일홍

MICA 연합 신년 새벽 기도회에 대한 소식은 참으로 신성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힘겨웠던 2020년을 보내며 2021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는 느낌이었을까요. 평소에 이름만 들어보았던 주님 교회가 연합하여 예배하며 하루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말씀을 전하며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모함을 주셨습니다. 매일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평소 그 의미가 생소했던 하나님의 이름은 더 가깝고 확실하게 전해졌고, 잘 알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름 속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며 깊은 묵상으로 이끄셨습니다. 처음 만나뵈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있었지만 그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여러 이름과 성품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전해 들으며 마음이 더욱 열리며 공간을 이루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있어 그 또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보고 계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다 나열할 수도 없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세세히 알게 하시어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2021 새해를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있게 시작할 힘을 MiCA 특새의 말씀을 통해 부여 주시는 참 좋은 신년회를 찬양합니다.

동부서림교회 박현영 집사

지난 한 해, 안좋은 일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내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새해는 시작되었고, 별 달라질 것 없는 삶에서 별 달라질 것 없는 마음으로 특새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새의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하여 터널과도 같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손잡고 함께 견고게신다는 것을 점점 선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빛선교교회 성도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가운데 은혜를 받을수록, 계속해서 내 안에 질문들이 생깁니다. 나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 하고 있는가. 내가 손에 쥔 것이, 또 내가 쥐고자 하는 것이 과연,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물뱃물인가, 골리앗의 크고 좋은 칼인가. 그러던 중 평강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찬양받으실 하나님께, 나는 내 몸이 굳어져갈 현실 앞에 마주했을때 이것도 하나님 뜻이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을 맞추면 나의 기도가 아닌, 내려놓음으로 얻어지는, 세상이 알수 없는 평강을 비로사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열림이 있는데, 앞에 다친 마라의 쓴 물 앞에 원망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케 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했던 나를, 그럼에도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전엔 귀로만 듣고 입술로 고백했던 이 말씀을, 오늘은 내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동양선교교회 우은영 집사

작년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 코로나 환경 속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는 특새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과연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특별 새벽 부흥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연합하여 기도하는 새벽을 함께 하면서, 귀한 여러 목사님들께서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위로가 되었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아침을 시작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벽마다 뜨거운 찬양을 인도하시는 찬양 목사님을 통해, 눈물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온라인 방송을 준비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 특별 새벽 방송이 아닌 참 예배로 다가 갔고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 있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한다는 귀한 배움과 감동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디사이롤교회 배일성 집사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MiCA 소속 교회들이 모여 신년 연합새벽예배를 드리니 매일 새벽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신년을 맞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 하리로다'라는 주제로 각교회 목사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메시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사고하고 그 의미가 크고 새롭습니다. 올 한해 새벽예배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선한창치교회 이현상 장로

이름은 그 존재의 인격과 본질을 대표하는 것이 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내포된 의미를 깨닫는 건 단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제로 열린 MiCA 연합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저에게 큰 은혜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깃들인 그분의 성품과 본질을 묵상하며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높으심과 깊으심과 광대하심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작금의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굳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결곡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토펙스 조은교회 Julie Ahn 전도사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막힌 2020년을 지나오면서, 예배와 소그룹 모임은 영상 속에서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말씀과 기도생활에 열심을 내 보여 했지만 점점 무기력해지고 나태해 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2021년 새해를 주셨고 그 첫 시간에 MiCA 신년 연합새벽기도회를 통해 놀라운 새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평생을 새벽예배가 이토록 기다려지는 처음 느껴보는 경험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선포되어질 때 마다 너무도 크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혼란스러운 현실 상황도, 나약한 제 자신도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게 됩니다. 뜨겁게 기다리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동안 메달라 있던 기도의 눈물이 다시금 터져 나옵니다. 더욱이 이번 특별연합기도회를 통해서 한 마음과 한 소망을 품고 함께 달려갈 길을 하는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음을 느끼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각각 다른 이름의 교회들로 모이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과 같이 이루고 있는 지체들임을 실감하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힘차게 달려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씨피교회 우승민 집사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귀한 연합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귀한 목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도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시고 순간 순간 우리 곁에 계시게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불안한 삶속에서 평강을 허락하시라 욕심의 병도 치료하시고 그 고분육에서도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집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2021년 주님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믿음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깝고 확실하게 전해졌고, 잘 알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름 속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며 깊은 묵상으로 이끄셨습니다. 처음 만나뵈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있었지만 그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여러 이름과 성품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전해 들으며 마음이 더욱 열리며 공간을 이루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있어 그 또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2021년 주님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유니온교회 한명옥 권사